Issue Comment

2018. 02. 08

NH 투자증권 005940

4Q17 실적 Review

보험/증권

Analysts **김고은**
02-6098-6670
goenkim@meritz.co.kr

4Q17 당기순이익(지배) 680억원(-21.4% QoQ, +83.7% YoY)

4Q17 당기순이익(지배) 680억원(-21.4% QoQ, +83.7% YoY) 시현. 상반기 대비 대형 IB Deal이 없었으나 한남동 부지 개발 관련 수익 40억원 및 티슈진 공모 수익 등 인식. 채권 Book이 커 금리 상승에 의한 채권 평가손 발생한 것이 운용 손익 감소의 주요 원인. 동사는 ELS 자체헤지 비중이 비교적 적어 조기상환 규모 감소에 따른 영향을 적게 받는 편. 금융상품 잔고 증가(+2조원)하고 있고 고액자산가 수 87,383명으로 크게 증가한 점 긍정적. 모바일 증권 나무 평생 무료수수료 이벤트 이후 약정 MS 상승하고 있어 향후 리테일 수익에 기여할 전망.

표1 NH투자증권 4Q17 실적 Review

(십억원)	4Q17	4Q16	(% YoY)	3Q17	(% QoQ)	컨센서스	(% diff.)	당사예상치	(% diff.)
순영업수익	245.1	227.1	8.0	277.6	-11.7			274.9	-10.8
영업이익	73.2	38.6	89.6	119.0	-38.5	101.2	-27.7	107.3	-31.8
당기순이익	67.5	37.2	81.2	86.7	-22.1	71.8	-5.9	78.9	-14.4
지배주주	68.0	37.0	83.7	86.5	-21.4	73.6	-7.6	78.8	-13.7

자료: NH투자증권,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

표2 NH투자증권 분기별 실적

(십억원)	1Q16	2Q16	3Q16	4Q16	1Q17	2Q17	3Q17	4Q17	% YoY	% QoQ
순영업수익	251.5	222.4	233.8	227.1	313.4	332.2	277.6	245.1	8.0	-11.7
Brokerage	84.5	89.1	78.0	77.2	71.3	83.3	79.1	100.9	30.6	27.6
IB 수수료	20.5	24.2	10.5	40.2	38.9	41.3	19.1	11.0	-72.5	-42.2
금융상품판매	7.8	7.9	7.9	7.4	8.6	8.9	10.2	9.0	22.2	-11.6
자산관리수수료	8.5	7.4	7.5	6.1	6.4	7.3	6.9	7.6	23.6	10.7
기타수수료	35.8	29.2	38.4	64.3	45.1	45.7	45.0	33.8	-47.5	-24.9
상품운용손익	-35.2	-92.8	-53.4	-72.9	21.2	31.3	-2.5	-13.9	적지	적지
이자손익	150.4	156.1	155.8	143.3	149.9	149.7	146.9	136.6	-4.7	-7.0
판매관리비	165.8	134.6	143.9	188.5	193.4	185.1	158.7	172.0	-8.8	8.4
영업이익	85.7	87.9	89.8	38.6	120.0	147.1	119.0	73.2	89.6	-38.5
영업외손익	-3.2	-3.1	-4.7	11.0	-3.7	-3.7	-4.7	-4.5	적전	적지
세전이익	82.5	84.8	85.1	49.6	116.3	143.3	114.3	68.6	38.4	-40.0
법인세비용	18.5	17.6	17.4	12.3	27.8	36.4	27.6	1.1	-90.9	-95.9
당기순이익	64.0	67.2	67.8	37.2	88.6	106.9	86.7	67.5	81.2	-22.1
지배주주	64.2	66.9	67.9	37.0	88.6	107.0	86.5	68.0	83.7	-21.4

주: 상품운용손익에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손익, 매도가능금융자산 손익, 외환거래손익, 배당금 및 분배금 포함
자료: NH투자증권,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

Compliance Notice

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.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2월 8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(DR, CB, IPO, 시장조성 등)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. 당사는 2018년 2월 8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2월 8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(작성자: 김고은)

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